

SKY 학종 지원자, 고교유형 따라 내신 최대 ‘2.08등급’ 차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1.87등급
자사고 2.86등급, 과학고 3.9등급

학종 입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학교 교육과정·학생부 함께 봐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희망자의 평균 내신이 고교유형에 따라 최대 2.08등급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12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모의지원 1만2525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지원자의 평균 내신은 1.87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율형사립고 2.86등급, 외국어고·국제고 3.05등급, 과학고 3.9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SKY 학



지난 7월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생부종합전형을 목표로 한 지원자 집단 안에서도 고교유형에 따라 평균 내신이 최대 2.08등급 차이를 보였다.

진학사는 이러한 차이가 특정 고교유형에 대한 대학의 우대나 불이익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뿐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과목 이수 현황과 성취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탐구활동 등 학생부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학교별 교육과정과

학생부 내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대학이 공개한 실제 입시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노어노문학과 2026학년도 70% 컷은 3.31등급이었지만,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다양한 고교유형 합격자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개인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고교유형별 합격 성적을 공개한 서울시립대 사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I에서 일반고와 자사고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이 모두 공개된 13개 모집단위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는 평균 2.32등급, 자사고는 4.07등급으로 1.75등급 차이를 보였다.

모집단위별로는 교통공학도가 일반고 2.39등급, 자사고 6.29등급으로 3.90등급

차이를 기록했다.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는 일반고 2.35등급, 자사고 5.93등급으로 3.58등급 차이가 났다. 신소재공학과(2.37등급 차),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1.35등급 차), 경영학부(1.37등급 차) 등에서도 일반고와 자사고 간 평균 내신 차이가 확인됐다.

우연철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학이 발표하는 입결은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합격선이 아니다”며 “같은 대학·학과 합격자라도 고교유형에 따라 내신 분포가 달라 평균 등급만 보고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면 전략을 잘못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공개된 입시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자신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부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전국 고교생 대상 프로젝트형 AI 교육캠프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내일까지
‘전국 학생 AI 꿈키움 캠프’ 열어
협업 프로젝트, 연구시설 탐방 진행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형 인공지능(AI) 교육 캠프를 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부, 연세대학교와 함께 13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2026년 전국 학생 AI 꿈키움 캠프’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연세대 AI혁신연구원 AI에듀테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연결, 함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전국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200명과 인솔교사 40명 등

총 240명이 참가한다.

캠프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경험과 관심 분야에 따라 ▲바이브 코딩 ▲생성형 AI+파이썬 ▲AI·로봇 ▲GPU 활용 딥러닝 등 4개 트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참여한다.

바이브 코딩 트랙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생성형 AI+파이썬 트랙에서는 생성형 AI와 파이썬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AI·로봇 트랙은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을 활용한 해커톤을, GPU 활용 딥러닝 트랙은 GPU 기반 딥러닝 모델 구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캠프에 앞서 참가 학생들은 온라인 사전교육을 통해 기초 개념과 실습 환경을

익히고 팀별 프로젝트 주제를 준비했다.

첫날인 13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연세대 교육학과 김남주 교수의 ‘AI 시대 학생들의 진로’ 특강이 열린다. 이어 트랙별 프로젝트 실습과 참가 학생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김지웅 교수가 ‘AI 시대 국내외 산업·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연세대 교육·연구시설을 둘러보고 결과물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교 AI·정보교육과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을 연계하고, 학생들의 AI 역량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앞줄 왼쪽부터)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권의문 서명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건의

수원·의왕·군포·안산 4개 자치단체

수원·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 4개 자치단체가 신분당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추진’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 등 13명이 참석해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에 힘을 합쳤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기존 광교역에서 북수원·장안지구·이목지구와 의왕역을 거쳐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지나 안산 반월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4.54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2024년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을 건의한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4개 자치체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수원·의왕·군포·안산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연결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신속 추진 박차

공사비 검증 절차 ‘조합 재량’으로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절차를 조합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꾸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과제 2건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개선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 절차를 조합의 재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비 검증 여부는 사업장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해 조합이 자율적으

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때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는 ‘세대주 성명’을 기재해야 해 소유자별 세대주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가 주요 확인 사항이고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도 개정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전재수, 동래시장서 현장 목소리 청취

(부산시장)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 열어

전재수 부산시장은 11일 오후 3시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고물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동래시장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 상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동래시장은 조선시대 5일장에서 유래해 일제강점기인 1937년 상설시장으로 자리잡은 부산 최초 전통시장이다.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소비활력쿠폰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과 주차 인프라 확충,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 후에는 동래시장 주요 점포를 둘러보는 현장 순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동백전 QR결제 신규 가맹 점포에 QR코드 패널을 전달하며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백전 QR 가맹점’ 확대에도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전 시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1일 1호 결제로 서명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시행 42일째에 마련됐다. 당시 시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1조3783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함양군

여행경비 50% 환급

함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내 재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편성한 시범사업으로,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본사업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관광객이 사전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방문 기간에 관광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최대 20만원, 동일 거주지 가족 5인까지 최대 50만원이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환급금의 20%가 추가 가산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함양 지역 내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자금 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